OO 손해보험사 대표이사

날짜 : 2021. 6. 7.

제목: ㈜삼척블루파워를 포함한 석탄사업과 관련한 보험 인수 중단 요청

저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막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삼척블루파워(이하 "㈜삼척블루파워") 등 석탄화력발전사업이 야기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기존에 이미 인수했던 보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시고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본 서한을 송부드립니다.

기후변화의 위험과 손해보험회사의 손실 위험

기후변화는 보험회사의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해마다 집계하여 발표하는 '글로벌 위험' 순위에서 상위 10개 위험 중 5개가 이상기후,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감염병,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기후변화 직접적으로 관련 환경 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미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태풍, 폭염, 산불,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7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3,300억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영국의 보험회사인 Lloyd's는 기후변화 관련 손해액이 1980년대에는 연간 500억 달러였으나 최근 10년동안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유하거나 투자한 자산 손실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재보험사인 Swiss Re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보험금 청구가 증가

---

[1]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16th Edition (2021,01)

[2] The Guardian, Lloyd's calls on insures to take into account climate-change risk (2014.05)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3] **보험산업 역시 기후변화의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산업에서 탈석탄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우선순위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의 감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활용도를 급격히 상실하고 있으며, 석탄을 감축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2020. 12.에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1세기 말까지 1.5도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석탄 사용량을 매년 11%씩 줄여야 하며[4],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1. 5. "2050 탄소 중립 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현재 시점으로부터는 어떠한 석탄발전소도 신규로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5]

이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 제공을 중지하고, 기존의 석탄 자산을 회수하는 '탈석탄 금융'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탈석탄 금융'은 투자와 보험인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PF 대출이나 회사채 투자 중단을 중심으로 한 '탈석탄 투자'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지만, '탈석탄 보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그린피스 등이 발간한 "한국석탄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체 석탄금융 규모 60조원 가운데 18조원은 보험의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탈석탄 보험'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보험사의 재무적 건전성 유지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

[3] Swiss Re Institute,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no action not an option (2021,04)

[4]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UNEP et al, The Production Gap, Special Report 2020 (2020,12)

[5] IE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2021,05)

‘탈석탄 보험’은 글로벌 트렌드

이미 글로벌 보험사들은 투자와 보험인수를 아우르는 ‘탈석탄 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AXA, Zurich, Allianz, Generali 등 전세계 주요 26개 주요 보험사들이 석탄사업에 대한 보험 인수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보험사들이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6] 대표적으로 아시아 최대규모의 보험사인 AIA는 지난 3월,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2028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7]

보험사들의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재보험업계에서도 탈석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Swiss Re는 2030년까지 OECD국가,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과 관련한 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8]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서 보험산업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보험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고, 현재 90개 이상의 글로벌 보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9] 나아가 지난 4월에는 2050년까지 보험회사의 투자와 보험인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 보험연합(Net Zero Insurance Alliance)” 이니셔티브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10]

탈석탄은 이미 시장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탈석탄 정책이 보험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위험과 ‘좌초자산’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11] 지난 12월, Société Générale은 투자와 보험인수에서 탈석탄 정책을 채택한 보험사에 대해 가치평가에서 6%의 프리미엄을

---

[6] Insurance Scorecard 2020

[7] The Guardian, Insurer AIA agrees to pull out of all coal investment by 2028 (2021,03)

[8] Swiss Re, Swiss Re announces ambitious climate targets; accelerates race to net zero (2021,03)

[9] UNEP PSI, Signatory Companies (2021,06)

[10] UNEP finance initiative, World’s leading insurers and reinsurers and UN Environment Programme to establish pioneering Net-Zero Insurance Alliance (2021,04)

[11] Moody's, Research Announcement: Moody's – Insurers’ retreat from coal is positive, reducing stranded asset risk, limiting liability risk (2020,02)

부여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12]

한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 사업 – 삼척, 고성, 강릉, 신서천

한국에는 아직도 4개 사업,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입니다. 삼척블루파워,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사업은 한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이미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재무적 리스크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나중에 공사가 개시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온실가스 외에도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30년간 최대 1,081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재무적 위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상 대규모 발전소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모두 조달된 이후 사업이 시작되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사업비의 20%에 달하는 1조원의 자금이 미달된 상황에서 사업이 시작됐고, 아직도 8,000억원의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미달된 사업 자금을 회사채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미 국내 채권 자산의 90%가량을 운용하는 주요 자산운용사 18곳이 이 사업과 관련된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곧이어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까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잔여 사업비 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척사업을 포함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완공되고 25-30년간 가동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파리협정이나 2050년 탄소

---

[12] Insurance Journal, As Insurers Exit Coal Underwriting, They May Find It’s Good for Stock Valuations (2021. 2.)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는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석탄 보험,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귀사에게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보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석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대출과 회사채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 석탄 투자를 단계적으로 회수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 귀사와 더 소통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mail : campaign@beyondcoal.kr

Contact : 02-6013-0137

석탄을 넘어서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녹색법률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카톨릭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본 캠페인은 보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 Insure Our Future 와 함께 합니다.